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2-13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2-13
2020 년 12 월 13 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172670415](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172670415)

kr.theanarchistlibrary.org

2020 년 12 월 13 일

차례

1. [증립적이지못할탄소증립]	3
2. [2 차가해좀막팔지마라]	3
3. [무엇을기대했나?]	4

1. [중립적이지 못할 탄소중립]

12월 10일 각 방송사를 통해 흑백 영상이 하나 송출됐다. 영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 화석연료 등 한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가스는 산림, 습지 등을 통해 제거하여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없애는 이른바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그 정책들을 열거하였다. 영상이 흑백인 이유는 고화질 컬러 영상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는 명목 때문이었다.

맞는 말이다. 우리 시대의 과제 중 하나인 기후 위기는 이미 당면 과제임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해져 가고 있고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탄소 배출은 점점 늘어가는 현실에서 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해온 것, 그리고 탄소중립 정책이 진정 흑백 방송쇼를 할 만큼이나 진정성 있는 것이었는가? 이제껏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그린 뉴딜 정책은 기업의 탄소 배출에 유의미한 규제와 제한을 가하지 않은 채 각종 이익을 당근으로 바쳐가면서 기업이 부디 더 친환경적으로 행동하길 바라는 보조금 정책에 지나지 않았다. 탄소 배출량은 거의 감소하지 않았고 반대로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놓였다. 전혀 '중립적이지 못한 결과'일 따름이다.

이번의 '탄소중립' 선언 또한 그린 뉴딜의 재판일 뿐이다.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는 거의 포함되지 않은 채 여전히 기업에 대한 지원금 정책이 위주이며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전환 계획도 애매 모호할 뿐이고 이를 주도할 주체도 이익을 쫓는 민간 기업에 맡겨져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탄소 선언은 그저 서비스 일뿐 정부는 노동 계약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자본에 바쳤듯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자본을 살리기 위해 환경 또한 장작으로 쓰고자 하고 있을 뿐이다. 자본에 봉사하는 정부에게도, 이익만을 쫓는 에너지 기업에게도 공공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현대의 문제를 자각한 민중이 생산수단에 대한 공공소유를 통해 그 통제를 회복할 때에서만 비로소 전 지구적 위기의 해결을 위한 행위가 가능할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73720.html>

2. [2 차가해 좀 막 팔지 마라]

영화 감독 김기덕이 라트비아에서 코로나 19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했다. 그의 영화사에서 의업적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그가 여성 배우들에게 행한 권력 관계를 이용한 그 모든 악행은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하며 죽어서

도단죄를받아마땅하다. 어느누구도이에대해이의를제기하기는어려울 것이다.

하지만그의죽음에대해명복을비는행위는또다른것이다. 그가아무리용서받지못할것을저질렀다고하더라도, 용서를받지않아그악행이더욱배가되었다하더라도이는변함이없다.

일각에서김기덕의죽음에명복을비는것은 2 차가해이니그의명복을 빌지말라는이야기가나오고있다. 하지만이는명복을비는사람들이알아서할일이지만명복을빌라빌지말라해서는안될일이다. 설령김기덕에대해영원하지옥불에서불타라고저주를퍼붓는사람일지라도말이다. 김기덕을미화시켜죄업을 덮으려는시도를하는것이아니라면그의명복에대해운운할자유는그누구에게라도있어야한다. 돌을던지든눈물을흘리든.

2 차가해라는말이너무나도대중없이사용되고있다. 2 차가해라는말이부당하게자유를침해하려는작금의이러한시도가계속된다면, 2 차가해라는말자체가억압과가해의기제로비웃음거리에지나지않게될것이다.

[https:// n.news.naver.com/ entertain/ article/ 416/0000265729](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416/0000265729)

3. [무엇을기대했나?]

무엇을기대했나? 민주당이다. 의회민주주의를그누구보다가장잘 활용하며, 자신들을의회민주주의의수호자라생각하고있는, 어찌보면, 아니, 확실히국민의힘보다더더욱의회민주주의에부합한정당이다. 그런이들이니당연히국회법상존재하는권한은마구잡이로행사할수있는것이아니겠나? 공수처법과여러건에대해서신청된, 정의당과국민의힘이진행하던필리버스터에대한종결이오늘 (12 월 13 일) 부로표결되어통과되었다. 민주당은언제나그렇듯‘확진자수’를내세우며필리버스터를마치시위를찍어눌러버리듯끝내버렸고, 국정원법과여러법안들을일사천리로해치웠다. ‘유능한’, ‘진보’정당답다. 대단하다!

우리는 5.18 법과필리버스터종결에있어의회민주주의의아주확실한단면을볼수있었다. 의회민주주의체제에서는반대의견은애초에설자리조차도없으며, 반대의견이설수있도록하는요식행위조차도언제나그렇듯힘의논리로찍어눌러질수밖에없다는것이다. 이는자연스럽게소위 ‘대의민주주의’의원칙에따라자신의의견을대리해서국회에표출할다른국회의원이배제되는형식이그어떤때에나생길수밖에없고, 당연하지만이건민주주의라고부를수없다. 애초에누군가의의견이나누군가의주장

이누군가를통해이야기돼야하는불합리성은제쳐두고서라도, ‘의회민주주의’라는체제는이미실시간으로그‘비민주성’을강력히드러내고있다.

이러한상황속에서의회민주주의의개선이나소위 ‘스위스식’이나 ‘북유럽식’을주장하는사람들도간혹보인다. 스스로를아나키스트로자처하는사람들또한 ‘의회민주주의’를개량하는형식으로무언가가가능하리라보는경우도존재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단호하게이야기한다. 의회민주주의는이미그자체로민주주의가아니며, 진정으로 ‘민주주의’를실현하기위해서는노동조합에서, 우리가스스로만든공동체에서, 우리가직접참여가능한코뮌에서우리의목소리를내는것뿐이다. 누가나의목소리를대변해주는순간, 민주주의는붕괴된다. 내가나의목소리를, 우리가우리의목소리를낼수있어야만민주주의가확립된다.

그러니의회민주주의를사랑하면서도민주당의폭정을비판하며, 의회민주주의를사랑하며국민의힘과야당의비협조를비탄하는정치꾼들에게말한다. 무엇을기대했나? 이것이그대들이사랑하기마지않는의회민주주의이다. 의회민주주의는당신들의목소리를대변하지못한다. 오로지노동자, 민중의사회혁명을통한직접적인투쟁과움직임만이진정민주주의를이루는길이다.

[https:// n.news.naver.com/ mnews/ article/ 088/0000676221?sid=100](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676221?sid=100)